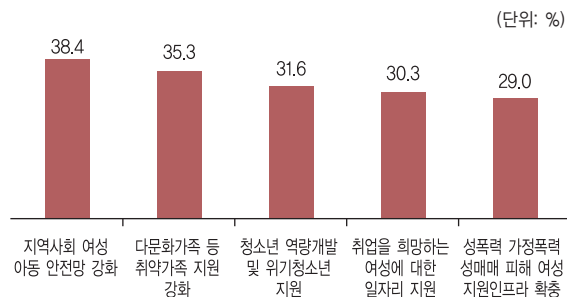


2012년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기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 추진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 본 조사는 여성가족부 정책과 관련한 평가 및 요구, 인지도를 통해 정책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기간은 2011.11.14~11.22일이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체감정책단을 포함하여 1,600명을 대상으로 함. 남성 800명, 여성 800명이 응답함.
- 조사대상자의 특징으로는 20~40대 연령층에 한정함.

- 현 정부 4년간 여성가족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두 가지를 모든 응답자가 표시하도록 한 결과,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정책 순으로 보면,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 38.4%,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강화' 35.3%,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 31.6%,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30.3%,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인프라 확충' 29.0%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현 정부 4년간 여성가족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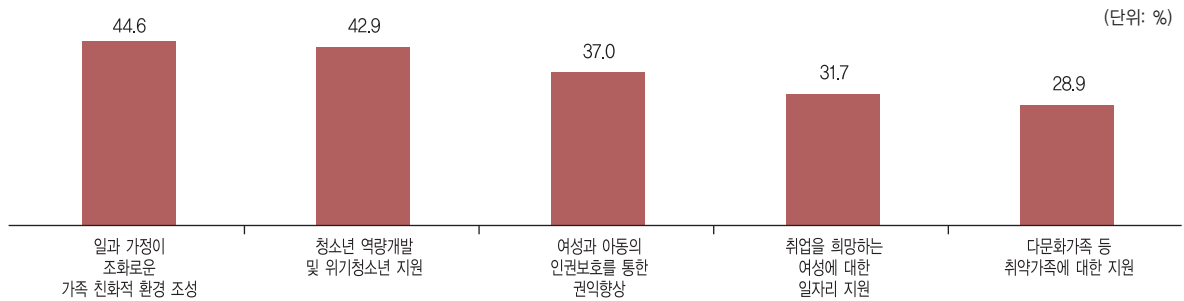
I. 2011년 여성가족부 정책 평가 및 2012년 정책 요구

이슈 #1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

- ☞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음.

- 성별 간에는 차이를 보여 남성 응답자는 ‘지역사회 여성 아동 안전망 강화’ 38.9%,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강화’ 38.3%,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 37.6%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38.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 여성 아동 안전망 강화’ 38.0%,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강화’ 32.4% 순으로 나타남. 연령층별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2] 2012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 (중복응답)

이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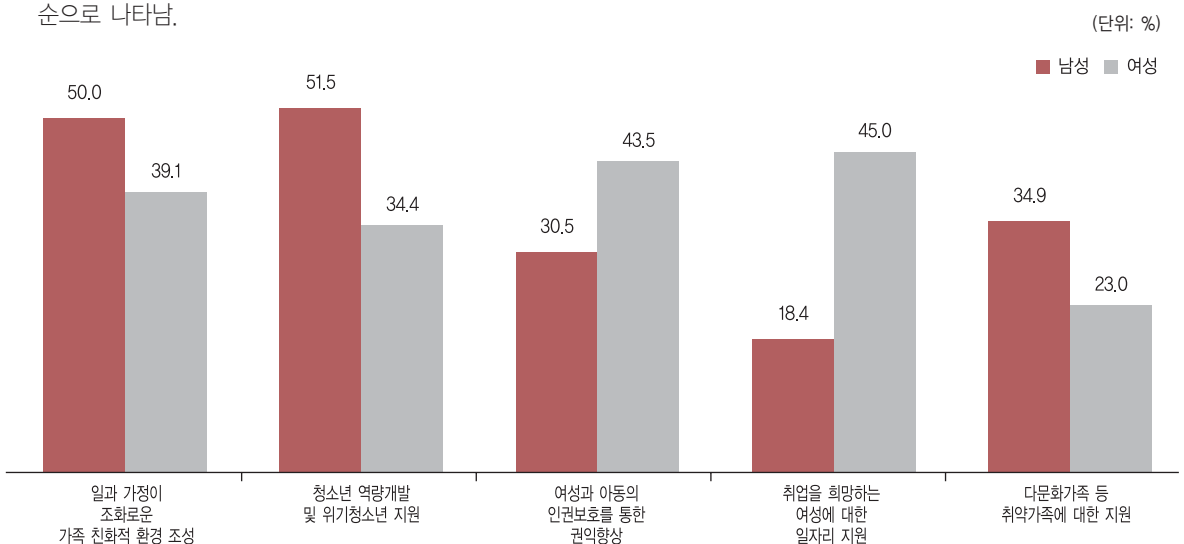
2012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 2012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 두 가지를 모든 응답자가 표시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률이 나타난 것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44.6%임.
- 그 다음은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 42.9%,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통한 권익향상' 37.0%,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31.7%,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28.9% 순으로 나타남.

☐ 2012년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에 대하여 남성은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 여성의 경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남.

- 2012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남성은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 51.5%,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50.0%,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에 34.9%의 응답률이 나타남.
- 여성의 경우는 가장 높은 응답률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으로 45.0%로 나타남. 그 다음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통한 권익향상' 43.5%,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39.1% 순임.



[그림 3] 2012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 (중복응답)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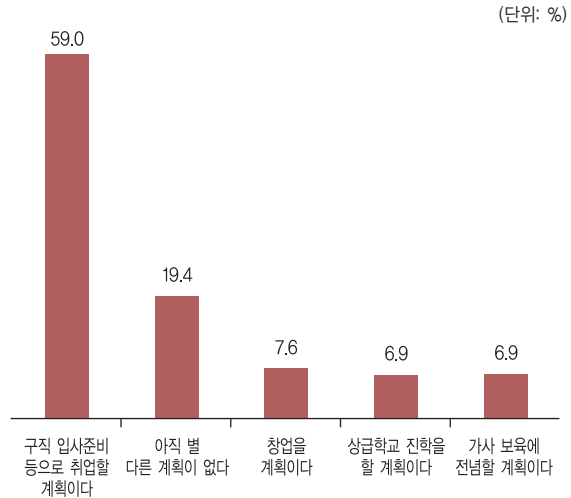
Ⅱ.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

이슈 #3

20~40대 연령층 여성, 취업 욕구 높아

☞ 가사와 상관없이 현재 실직 상태인 여성 59.0%는 '구직·입사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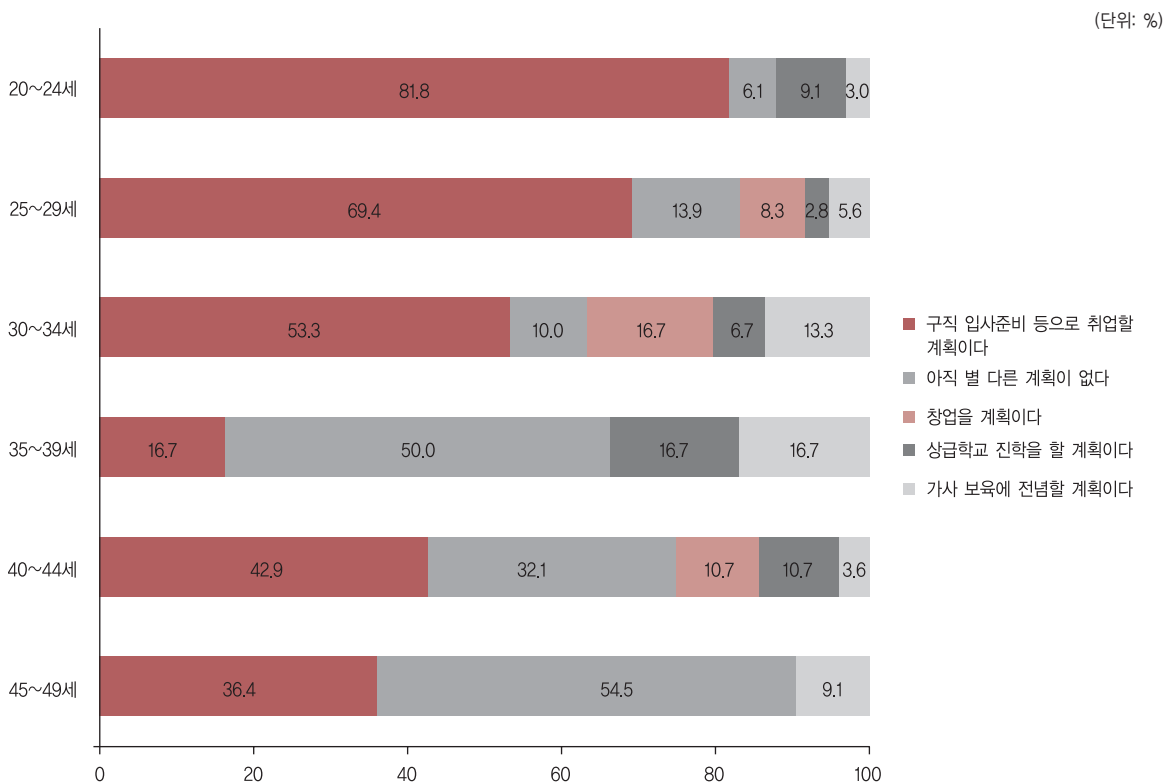
- 20~40대 연령층 온라인 조사응답자 800명 중 65.8%는 '직장에 다니고 있음'으로 응답함. 18.0%는 '가사와 상관없이' 무직 상태, 16.3%는 '가사와 보육으로 인해' 무직 상태라고 응답함. 가사와 상관없이 무직 상태인 여성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은 결과, 59.0%가 '구직, 입사준비 등으로 취업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그림 4] 앞으로의 계획(가사와 상관없이 현재 무직)

☞ 35~39세 연령층 '취업계획' 응답률 가장 낮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사·보육에 전념' 응답률 높음.

- 20~40대 연령층 여성, 가사와 상관없이 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20대는 '취업계획'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35~39세, 45~49세 연령층은 '창업 계획'을 갖고 있는 응답률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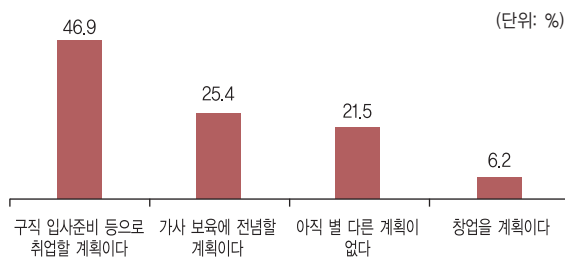
[그림 5] 앞으로의 계획(가사와 상관없이 현재 무직) - 연령

이슈 #4

가사·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취업욕구

☞ 가사·보육으로 인해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 중 '취업 계획'을 가진 응답률은 46.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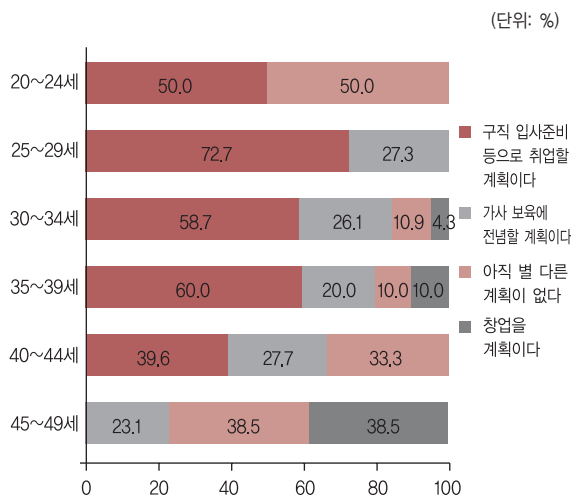
- 가사 보육으로 인해 학교 졸업 이후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둔 여성의 향후 계획에서 46.9%는 '구직·입사준비 등으로 취업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25.4%는 '가사·보육에 전념할 계획', 21.5%는 '아직 별 다른 계획없음', 6.2%는 '창업을 계획'으로 응답함.



[그림 6] 앞으로의 계획(가사·보육으로 경력단절)

☞ 가사·보육으로 인해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25~29세 여성, '취업' 의도를 갖는 비율은 72.7%로 높음.

- 가사·보육으로 인해 학교 졸업 이후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둔 여성의 향후 계획을 보면, 20~30대 연령층은 취업할 계획이라는 응답률이 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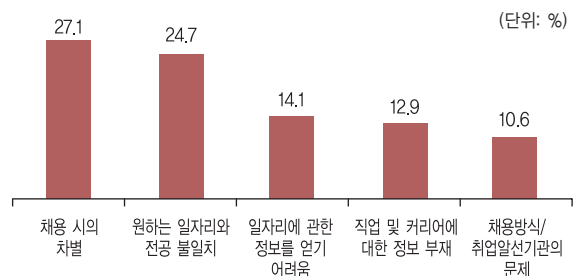
[그림 7] 앞으로의 계획(가사·보육으로 경력단절) - 연령

이슈 #5

구직활동시 애로 사항

☞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으로는 '채용 시의 차별', '원하는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에 많은 응답률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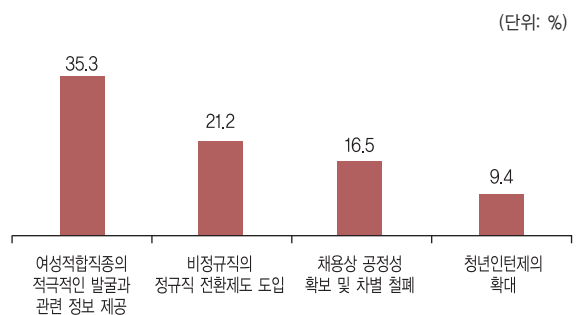
- 가사와 상관없이, 현재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 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27.1%가 '채용 시의 차별'에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원하는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24.7%,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14.1%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구직자)

☞ 여성청년층 취업난 해결에 필요한 지원은 '여성적합직종의 적극적인 발굴과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이 높음.

- 현재 무직인 상태로 구직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의견으로 여성청년층 취업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35.3%가 '여성적합직종의 적극적인 발굴과 관련 정보 제공', 21.2%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도입', 16.5%는 '채용상 공정성 확보 및 차별 철폐'에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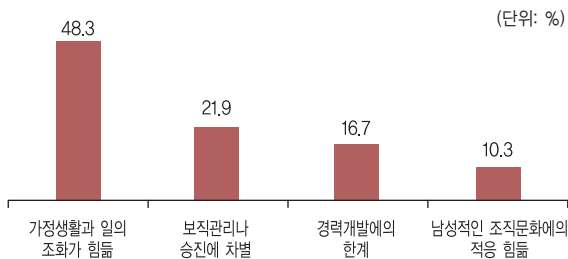
[그림 9] 여성청년층 취업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구직자)

이슈 #6

취업현장의 재직자 애로사항

❏ 취업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가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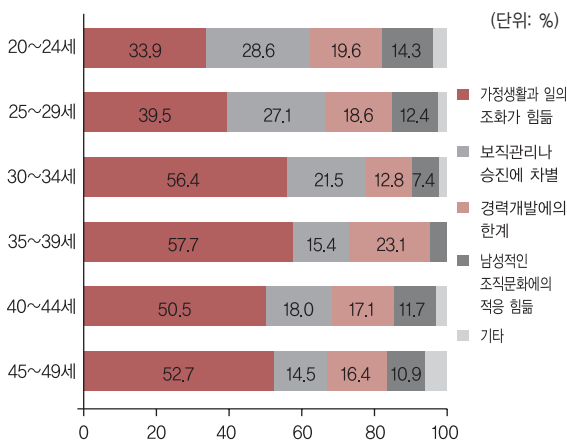
-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취업자가 여성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률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가 힘들'으로 48.3%를 차지함. 그 다음은 '보직관리나 승진에 차별' 21.9%, '경력개발에의 한계' 16.7%, '남성적인 조직문화에의 적응 힘들' 10.3%임.



[그림 10] 여성재직자로서 애로사항(재직자)

❏ 30대 연령층이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가 힘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재직자의 가장 큰 어려움에서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가 힘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은 30~34세, 35~39세로 나타남. 20대 연령층은 직장생활에서 '보직관리나 승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응답률이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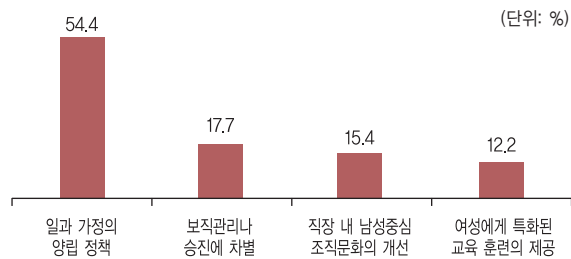
[그림 11] 여성재직자로서 애로사항(재직자) - 연령

이슈 #7

여성 재직자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 여성재직자 지원 정책으로 가장 많은 요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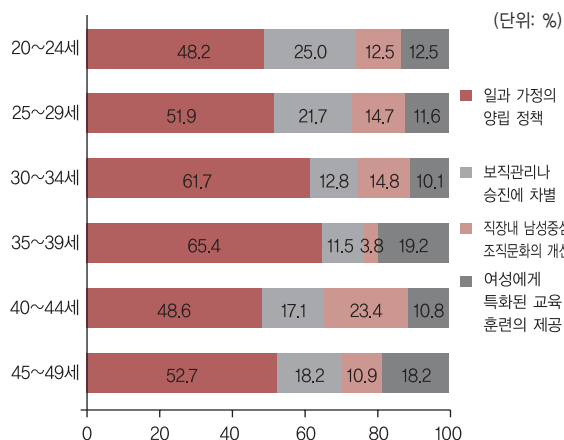
-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여성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 54.4%로 요구가 가장 높음. 그 다음은 '보직 관리 및 승진의 차별 해소', '직장 내 남성 중심 조직문화의 개선', '여성에게 특화된 교육훈련의 제공'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여성재직자 지원 정책(재직자)

❏ 30대 연령층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지원 요구가 높음

- 연령층별로 여성재직자 지원 정책 요구를 보면, 30대 연령층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60%를 넘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20대는 '직장내 보직관리나 승진차별 해소'에 대한 응답률이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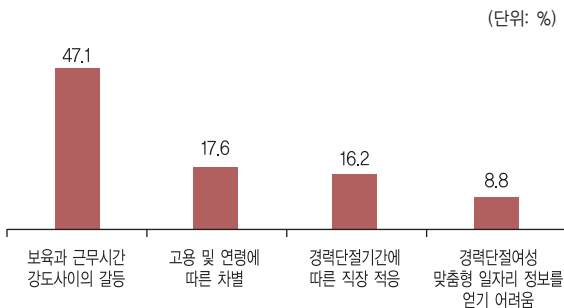
[그림 13] 여성재직자 지원 정책(재직자) - 연령

이슈 #8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애로 사항

가사·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애로사항, '보육과 근무시간 강도 사이의 갈등'이 가장 큼

- 가사 보육으로 인해 경력단절 상태(실직상태, 직장을 다니 그만 둠)에 있는 여성으로 향후 취업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것은 '보육과 근무시간 사이의 갈등'으로 47.1%가 이에 응답함. 그 다음은 '고용 및 연령에 따른 차별' 17.6%,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직장 적응' 16.2%,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정보 얻기 어려움' 8.8%임.



[그림 14] 경력 단절 후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경력단절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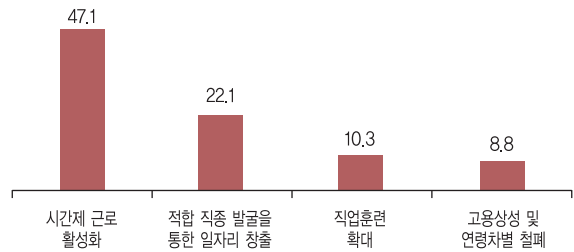
이슈 #9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필요한 정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로 나타남.

- 가사 보육으로 인해 경력단절 상태(실직상태, 직장을 다니 그만 둠)에 있는 여성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가

장 많은 응답률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로 나타남. 그 다음은 '적합 직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확대' 순으로 나타남.



[그림 15] 경력 단절 후 구직활동 시 필요한 지원(경력단절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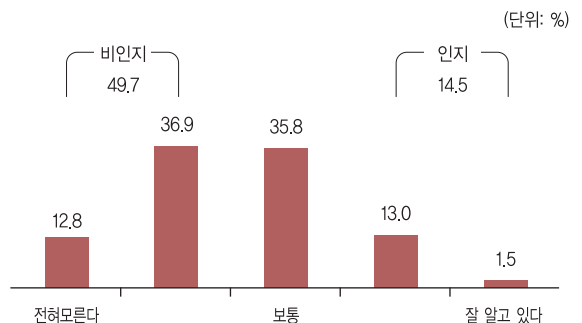
Ⅱ 여성가족부 정책인지도

이슈 #10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음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새일센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14.5%로 다소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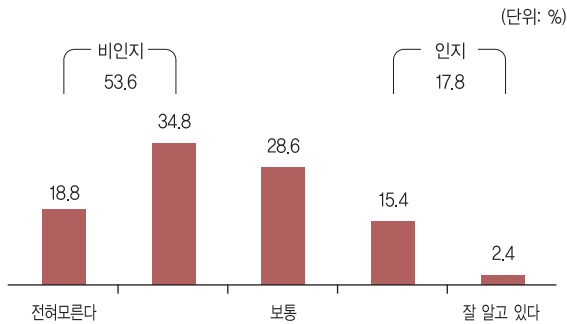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14.5%, '보통' 35.8%로 나타남. '모른다'는 응답률이 49.7%로 '안다'는 응답률보다 훨씬 높음.



[그림 16]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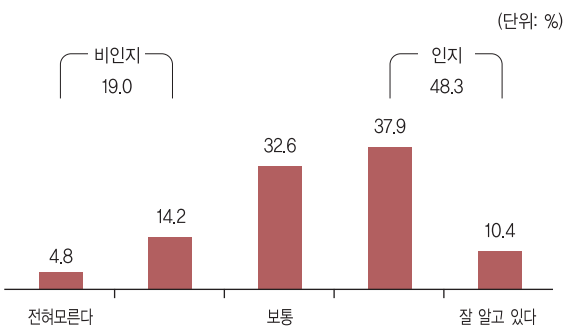
1) 새일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기관임. 2009년부터 운영 중임.

- 가족사랑의 날(수요일) 캠페인²⁾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률 17.8%, ‘보통’ 28.6%, ‘모른다’는 응답률이 53.6%임. 가족사랑의 날 인지도는 ‘보통’에 대한 응답률도 높지 않아서 절반 이하로 낮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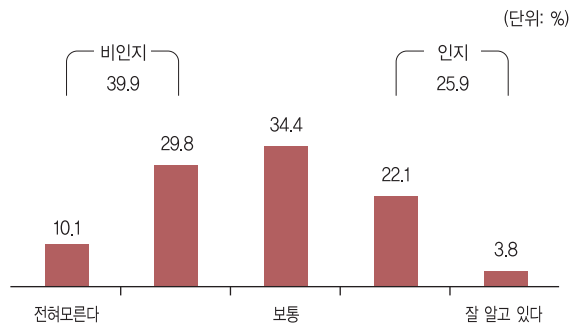
〈그림 17〉 가족사랑의 날(수요일) 캠페인

-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³⁾는 앞에서 살펴본 정책과 달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48.3%, ‘보통’이 32.6%로 나타남. ‘모른다’는 응답률은 19.0%로 높지 않게 나타남.



〈그림 18〉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⁴⁾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는 응답률 25.9%, 보통 34.4%, ‘모른다’는 응답률 39.9%로 나타남. ‘보통’ 응답률은 들은 적은 있으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로 짐작할 수 있음. ‘모른다’는 응답률은 40%정도로 볼 수 있음.



〈그림 19〉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 인지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는 3.4,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는 2.8,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5, 가족사랑의 날 2.5로 나타남.

- 인지도에 성별간 차이가 있는 정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인지도가, ‘청소년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는 남성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정책명	남성	여성	전체	p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2.4	2.6	2.5	0.000
가족사랑의 날 (수요일) 캠페인	2.5	2.5	2.5	0.110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3.6	3.1	3.4	0.000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2.8	2.8	2.8	0.095

〈표1〉 여성가족부 정책인지도

2) 매월 셋째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 정시퇴근일터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내기를 홍보함.

3)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제도로 2011.11.20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임.

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2011.1.1부터는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은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IV.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

☞ 잘했다는 국민 평가를 중심으로 긍정적 평가를 높여 나감

- 현 정부 4년간 여성가족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두 가지 선택결과에서 응답률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는 38.4%의 응답률이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강화'는 35.3%,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은 31.6%,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30.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인프라 확충'은 29.0%의 응답률이 나타남.

☞ '일·가정 양립 지원',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이 추진되어야 함

- 2012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 두 가지를 모든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나타난 응답률을 보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4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 42.9%,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통한 권익향상' 37.0%,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31.7%,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28.9%임.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 성별 간에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는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위기청소년 지원' 51.5%,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50.0%로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45.0%,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통한 권익향상' 43.5%로 나타남.

☞ 여성재직자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

-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여성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 54.4%로 요구가 가장 높음. 그 다음은 '보직 관리 및 승진의 차별 해소', '직장내 남성 중심 조직문화의 개선', '여성에게 특화된 교육훈련의 제공' 순임.

☞ 여성적합직종 개발 활성화

- 여성청년층 취업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구직자 여성 응답자의 35.3%가 '여성적합직종의 적극적인 발굴과 관련 정보제공'을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도입' 21.2%, '채용상 공정성 확보 및 차별 철폐' 16.5% 등임.

☞ 시간제 근무 활성화 추진

- 경력 단절 후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에 대해 경력단절 여성 응답자의 47.1%가 '보육과 근무시간 강도사이의 갈등'에 응답함. 그 다음으로 '고용 및 연령에 따른 차별' 17.6%,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직장 적응' 16.2%임.
- 경력 단절 후 구직활동 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경력단절 여성 응답자의 47.1%가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선택함. 그 다음으로 '적합직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22.1%, '직업훈련 확대' 10.3% 등임.